

2025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제목	헌혈 -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	------------------------------

얼마 전 참 가까이 지내는 선배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헌혈대에서 소매를 걷고 활짝 웃는 얼굴이 봄날 꽃송이가 따로 없었다. 뒤이어 벨이 울렸다. 그분이었다. 방금 환하게 웃는 모습과는 다르게 전화기를 타고 오는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았다. 궁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오늘 헌혈 정년 기념 마지막 헌혈을 마쳤네. 벌써 이렇게 됐어.” 그의 목소리가 가을 낙엽처럼 쓸쓸함에 잠겼다.

젊디젊다고 여겼는데 어느새 헌혈 정년 만 69세라니 오히려 듣는 내가 무상함을 실감했다. 내겐 나를 나타내는 대표 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헌혈과 철인3종이다. 구태여 하나 더 끼워 넣자면 시답잖은 글쓰기를 들 수 있겠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연하게도 헌혈과 철인3종은 내 몸을 굴리는 두 바퀴가 되어 어느덧 25년째가 된다. 강산이 두 번 하고도 반이 바뀌는 사이 철인 대회 150여 차례 완주와 헌혈 400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온 훈장인 셈이다.

중국 고대의 철학서인 《열자(列子)》에 나오는 이야기다.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나이 90이 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우공(愚公)이었는데, 큰 산 두 개가 그가 사는 집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산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다. 우공은 어느 날 높은 산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많고 산이 너무 높아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공은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과 자손들이 계속 이 일을 이어 나가면 결국 산은 옮겨질 것이다”라며 굳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우공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일 조금씩 흙과 돌을 나르며 산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하늘의 신이 우공의 끈기와 의지에 감동하여 두 산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다고 한다. 바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유래다.

내 헌혈 목표는 500회다. 헌혈 정년이 되기 전 조기 달성하면 더 큰 산을 옮길 목표로 삼겠다. 기필코 집 앞의 산을 옮기고 말겠다는 우공의 마음으로. 문제는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열정이 식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지속성이다.

헌혈하러 온 사람은 참 아름다워 보인다. 내 눈에는 그렇다. 손가락과 팔뚝을 바늘에 찔리는 수고를 감내하면서 자신의 일부를 남에게 바치러 온 사람들이니 말이다. 헌혈하러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목소리 톤을 조절해서 ‘라’에서 ‘시’ 정도 음색을 유지한다. 게다가 눈까지 맞추며 인사를 건넨다. 아름다운 헌혈자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참 성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헌혈의집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쳐난다.

격주 일요일에 하던 정기 헌혈일을 퇴직하고 난 후 월요일로 바꾸었다. 평일에 시간을 쪼개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헌혈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생각에서였다. 평소처럼 2월 초순 월요일 오전 헌혈의 집에 들렀다. 어느 때 같으면 서너

명씩 헌혈대에 누워있어야 할 헌혈의 집을 내가 독차지했다. 상냥하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풀 죽은 얼굴이다. 방학이라 헌혈자 발걸음이 뜸해졌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학교와 군부대는 혈액이 부족할 때마다 급한 불을 꺼주는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혈액원은 일선 학교와 부대를 대상으로 일 년 헌혈 수급 계획을 세워두고 헌혈량을 조절한다. 혈액은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나 이상 고온과 재해로 헌혈지원자가 감소하면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온통 비상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혈액원은 혈액 부족으로 인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헌혈장려를 위해 각 지자체와 헌혈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한다. 이러한 헌혈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 헌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제는 다 커서 색시와 살림을 차린 아들과 제 짝을 만나 새로운 등지를 튼 딸이 있다. 이 녀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헌혈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이 쌓이더니 은장과 금장을 훌쩍 넘어 헌혈 100회 ‘헌혈 유공 명예장’을 받았다. 100번 이상이면 다회 헌혈자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갑자기 가족 3명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 헌혈 명예의 전당이 되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꾸준히 소매를 걷고 있는데 아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며느리도 헌혈 대열에 동참했다. 진즉 30회를 넘기고 이제 금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아들은 183회, 딸은 135회째 소매를 걷었다. 이러구러 직계가족 헌혈 회수가 700회를 넘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헌혈명문가가 된 셈이다.

지난번 헌혈의집에 갔을 때 헌혈자 10여 명이 있었다. 한결같이 모두 낮이 익은 얼굴이었다. 각자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 서로는 낯선 상태였다. 어떤 경우였을까. 내 제자이면서 나이 차이가 나니까 상대를 알지 못하는 원광고등학교 선후배기간이었다.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두고 볼 내가 아니다. 각자 통성명과 졸업 횟수를 밝히면서 즉석 동문회를 열었다. 이런 자리에서 유대 관계를 맺어 헌혈에 더욱 관심 두게 하는 일이 홍보위원의 의무 아닐까? 20여 년 동안 꾸준히 헌혈한 결실을 본 것 같아서 뿌듯했다.

내게 헌혈이란 단순히 피만 뽑는 게 아니고 꾸준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이다. 몸에 밴 이런 습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는 힘을 준다. 헌혈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수첩에 격주마다 붉게 표시해두고 소매를 걷는다. 헌혈하면서 느낀 감상을 신문에 실거나 시나 수필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다.

이따금 헌혈 마치고 SNS에 짧은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라도 헌혈을 떠올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356회 헌혈을 마쳤을 때다. 해외에 다녀와 오랜만에 하는 기념으로 인증사진을 올렸다. 잠시 후 지인께서 댓글을 남기셨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아홉 번만 더 하시면 365회네요. 365에 점 하나만 찍으면 36.5도, 선생

님의 헌혈이 인간의 체온을 전하는 일이군요.” 아하, 그렇구나. 그분의 참 재치 있는 글을 읽다가 빙그레 미소 지었다. 이런 반응을 받았으니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한번은 헌혈 홍보 방송을 마무리할 무렵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습 질문을 받았다. “위원님에게 헌혈이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뭔가 그럴듯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 문득 떠올랐다. “나에게 헌혈이란 한 달에 시집 한 권이다.” 진행자가 의아해하며 재차 그 의미를 물었다. 어느 순간부터 헌혈을 마치고 기념품 가운데 오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시집은 대략 만 원 선이다. 그래서 한 달에 2회 하면 보고 싶은 시집 한 권이 내 손에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스스로 대견해서 내게 상이라도 주고 싶었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작가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런 방송은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 평소에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요.”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거기까지는 제 능력이 안 되네요.”

헌혈과 철인3종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내겐 한 즐거이에서 피어난 꽃과 잎사귀 같다. 의외로 연관성이 많으니 말이다. 까다로운 헌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게 필수다. 운동으로 다진 건강을 나눌 수 있으니 이 둘은 땀 수 없는 두 바퀴 수레가 되어 하나가 빠지면 섭섭할 일이다. 방금 삼백아흔세 번째 헌혈을 마쳤다. 겨울 오후, 오늘따라 헌혈의 집이 유난히 포근했다. 나오면서 내 시집에 실은 시를 다시 한번 되된다. 헌혈,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



헌혈 300회 하

운영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